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녹색교통해커톤이 진행된 장소는?



조운동네 좋은소식 12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4년 6월 15일 부터 28일까지
발표	2024년 7월 3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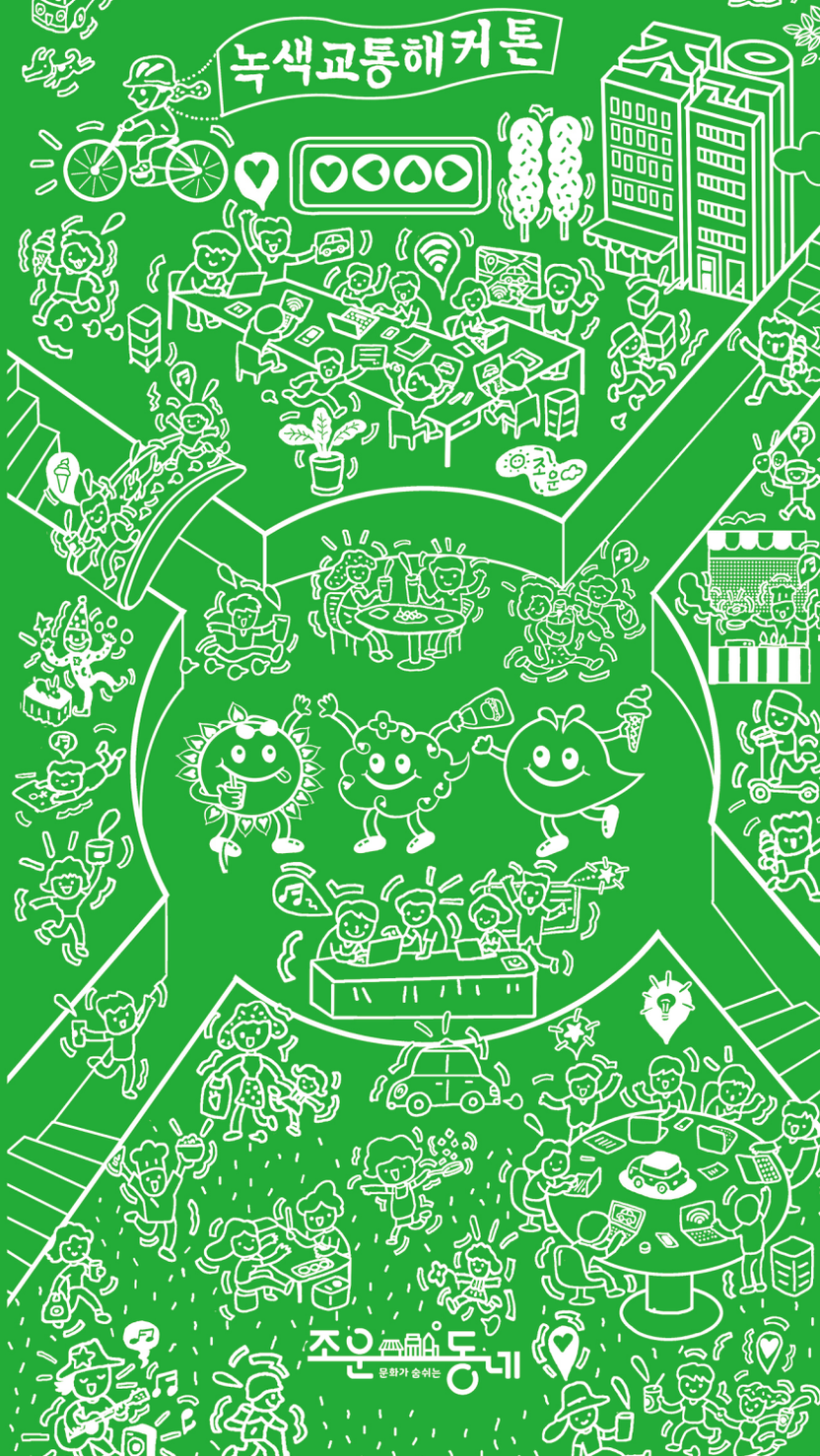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춘천시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4년 6월 12호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조운 미식회 8

조운 친구들 12

우리는 즐겁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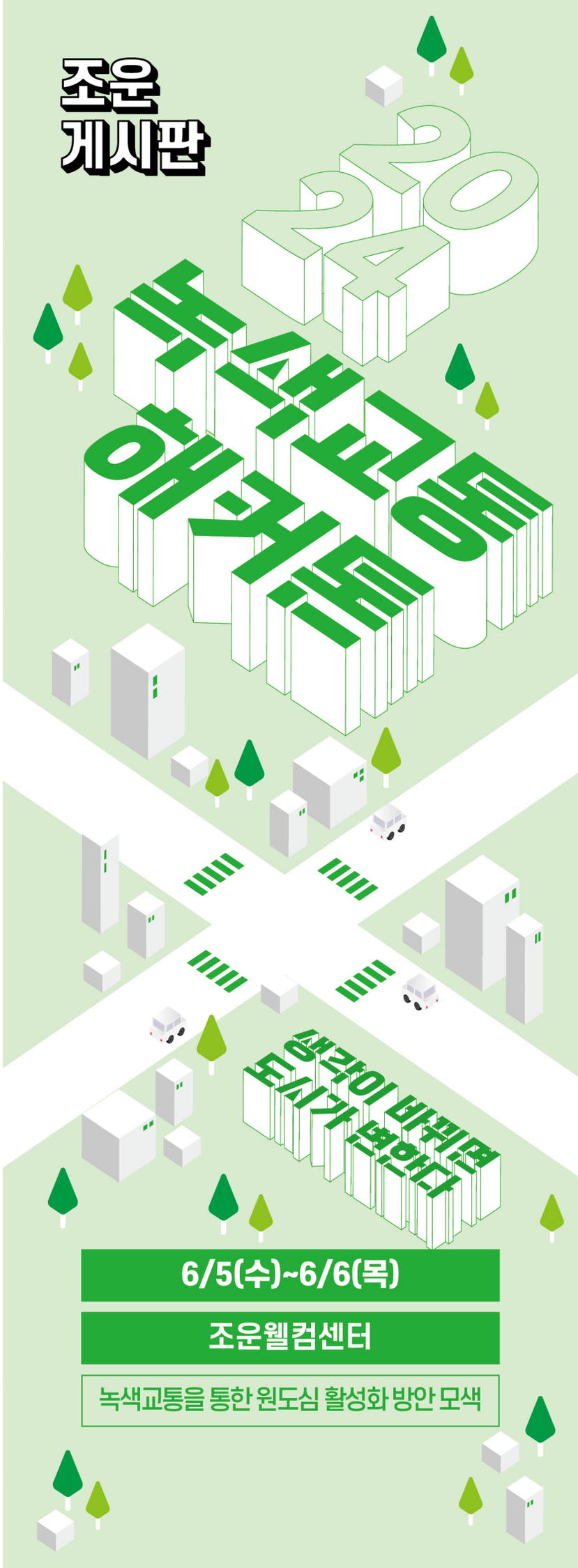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4년 6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표지일러스트 유환석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버거는 만병통치약이다

하스피럴 버거
이성민

하스피럴 버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스피럴 버거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버거로 치유한다는 취지로, 마치 병원과도 같은 버거집을 생각하며 만든 공간이자 브랜드입니다. 원래 하스피럴버거는 강원대학교 인근에서 시작했는데요. 강대점은 진짜 매장 자체가 병원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병원 옆에서 매장을 운영해서 하스피럴 버거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웃음). 강대점도 강원대학교 병원 근처이고, 현재는 인성병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컨셉과 잘 맞아떨어진 거죠.

요선동에서 오픈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의류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한마디로 잘린거죠. 그 뒤로 고향인 춘천에 내려오게 됐는데, 강대에 있는 브릭스 피자 대표가 친한 동생이에요. 새롭게 버거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됐죠. 그렇게 4년 전부터 버거를 만들게 됐어요. 버거를 원체 좋아하기도 했지

만 일을 하다 보니 참 재밌더라고요. 저한테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상권을 알아보던 중 마침 요선동에서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맞은편에 있는 '버거핀'인데요. 근처를 알아보던 중 조건이 맞는 곳이 있어서 현재 위치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하스피럴 버거를 운영하시면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작년 10월에 요선동에 있는 팀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었어요. 블루마블 요선이라고 해서 '하스피럴 버거', '버거핀', 가죽공방 '제피', 수제비누를 만드는 '르사봉', 꽃 공예를 하는 '꽃 다운', 그리고 다이닝펍 '033'. 요선동에서 장사를 하는 젊은 사장들이 의기투합한 행사여서 기억에 남네요.
또 햄버거 가게이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종종 오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낭여행 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혼자 오셔요. 근데 저는 영어를 아예 모르니까(웃음). 그냥 막 어떻게 해야 하겠는데, 손짓발짓 다 했죠. 다행히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번역기 써서 겨우 주문받았죠. 특히 서양분들은 자기 본토 음식이잖아요? 어떤 분은 맛있다고 쌍따봉을 날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처음 가게를 알아볼 땐 한림대 쪽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기가 마침 코로나 때라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요선동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요선동과는 참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좀 밝은 분위기가 됐다고나 할까? 하지만 주변 상권을 봤을 때 버거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버거가 한국인들 정서에는 한 끼 식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간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요선동을 찾는 분들은 주로 점심식사를 하기위한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9월에 임대계약이 끝나는데 갱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요선동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하스피럴 버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파익스피크소다 최승임

춘천에서 만나는 아메리칸 올드 스쿨 소다

파익스피크소다
최승임

파익스피크소다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미국은 올드한 스타일의 탄산음료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마시는 소다 문화가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카페 메뉴에서 에이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커피문화를 넘어설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그게 미국식 소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국내 최초의 아메리칸 소다 전문점 '파익스피크소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파익스피크소다라는 이름은 '구름을 향한 경주'로 유명한 모터스포츠, 파익스피크 힐 클라임 레이싱에서 착안했어요. 미국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파익스피크를 오르는 산악 레이스처럼 도전하는 삶이 자유와 행복을 준다는 의미로 파익스피크소다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파익스피크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도 청량한 소다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웃음). 파익스피크소다 역시 한국에 아메리칸 소다를 알리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춘천에서 아메리칸 소다샵을 열게 된 이유, 그리고 춘천의 많은 곳 중에 '조운동'에서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춘천은 낭만의 도시잖아요? 낭만과 도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파익스피크소다가 도전, 자유, 행복이라는 컨셉을 표방하는 만큼 낭만의 도시 춘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메리칸 소다 전문점으로서 미국 중서부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담고 싶었는데, 조운동의 붉은색 벽돌 건물이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시청 앞'이라고 하면 찾아오기 쉽잖아요. 도보로 이동하기도 쉽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한 공간을 찾다 보니 현재의 위치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올여름에 어울릴만한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세 가지 음료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스프라이트 베이스에 민트하고 그린애플, 파인애플이 들어간 '언더더씨'입니다. 나무에서 갓 딴 청사과 맛이에요. 되게 상큼하고 여름에 딱 어울리고, 예쁜 초록색의 소다에요. 두 번째는 '루쉐의 레몬에이드 슬러시'. 루쉐의 레몬에이드 슬러시는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보편적인 형태의 레몬에이드예요. 파익스피크소다에서는 음료 커스텀이 가능한데요. 커스텀 음료가 반응이 좋으면 고객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따서 메뉴를 출시해 드려요. 그 1호가 루쉐의 레몬에이드에요.마지막으로 '바닐라 콜드브루 프라페'가 있거든요. 커피에 바닐라 향이 듬뿍 들어간 프라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럽지만, 좋은 반응을 끌어내서 2호점, 3호점으로 확산해 나가고 싶어요. 도전하는 삶이 자유와 행복을 준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어요. 언젠가 시청 앞 광장에서 BMX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겠죠(웃음).

조운 미식회

조운미식회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주
춘천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만들게 된 모임입니다!

각 팀원의 입맛을 소개해 볼까요?

샌드위치 같은 빵 종류를 즐겨 먹어요.
떡볶이 제일 좋아하고 엽떡은 착한 맛만 먹어요.
향신료가 너무 센 음식은 좀 힘들어요.

해산물, 매운 음식, 향신료 등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이 제일 좋네요.^^
죽먹음식은 감자탕!

가리는 음식 거의 없이 다 잘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
아 콩국수는 못 먹어요.X

무난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못 먹어요.

담터 땡밥

돌아온 추억의 그 맛!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천길 9
033-818-2004
기본치즈땡밥

2010년대 춘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모를 수가 없는 땡밥! 바로 그 땡밥이 다시 돌아왔어요. 추억을 찾아 웨이팅도 감수하며 먹었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보이는 계란국과 단무지, 뒤이어 나온 땡밥까지. 그 시절 먹었던 그 맛처럼 변함없이 맛있었습니다~!

코디님들의 한줄평

땡밥, 계란국, 단무지 구성과 맛도 예전 그대로여서
너무 좋았어요~ 김치, 치즈, 옥수수콘 조합은
언제나 옳은 거 같아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당.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먹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기대한 만큼 맛있었고 계란국이랑 같이
먹으니까 깔끔해서 좋았어요.

중학생 때 먹던 그 맛이 똑같이 재현된 것 같아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게 뭐라고 맛있어요~~! 그 시절과
똑같은 단무지, 계란국 좋았습니다 :) 다만 추억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웨이팅이 있습니다. ㅎㅎ

✦ 돈카돈까 춘천지하쇼핑몰점 ✦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메뉴가 맛있는 돈가스 맛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39-3 춘천지하쇼핑몰 다43~46
033-252-1510
콤비까스

돈가스, 우동, 냉모밀부터 알밥, 파스타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는 이곳! 이 가게는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꼭 한 번쯤은 먹어봤을 가게인데요, 여전히 너무 맛있고, 메뉴가 다양하고, 손님이 많습니다! 춘천 명동에 놀러 왔는데 돈가스를 먹고 싶다면! 돈카돈까 어떨까요. ☺

코디님들의 한줄평

- 돈카돈까 최애 메뉴 치즈콤비예요~~
  비빔 국수가 새콤달콤해서 같이 먹기 좋아용!
- 숨겨진 냉모밀 맛집! 고추냉이 필수!
  뼛속까지 시원합니다~~
- 오므라이스와 치킨까스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메뉴에요!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
- 돈가스와 쫄깃하고 새콤한 비빔국수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돈가스도 바삭하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 이순례 손만두 ✦

살짝 매콤하면서 속이 꽉 찬 김치만두로 구성된 손만둣국 맛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아침길 12-1, 조운동행정복지센터 앞
033-242-0066
손만둣국

쫄깃쫄깃한 만두피와 매콤한 소로 이루어진 김치만두가 정말 맛있었어요. 또한 반찬으로 나오는 겉절이의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만두가 맛있으니, 만둣국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요! 양도 정말 푸짐해요. 바람 부는 쌀쌀한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점심으로 먹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

코디님들의 한줄평

- 비빔칼국수는 상큼한 맛보다는
  고추장의 칼칼함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양념장이 적어 보여서 더 넣었더니 매웠습니다.;;ㅎㅎ
- 직접 빚는 만두는 확실히 다릅니다!
  슴슴하기보단 자극적인 맛의 김치만두예요.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물리지 않아요.
- 역시 만둣국에는 김치만두! 만두도 국물도 너무
  맛있었고 같이 나오는 김치도 정말 맛있어요. ☺
- 속이 꽉 들어찬 김치만두와 진한 국물의
  조합은 말해 뭐해. 맛있었습니다. :)



새로운 시도
재미있는 예술

Q.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진 작업하고 있고요. 촬영한 사진에 패턴을 넣거나 생성형 AI로 변형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축도시'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어요. 춘천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파트 풍경 속에 AI로 생성한 아파트 이미지를 넣었어요. 근데 풍경 속에 AI로 생성한 아파트를 넣어도 위화감이나 이질감이 들지 않는 거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 위화감을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아파트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궁극적으로 도시에 대한 미학까지 이야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Q. 기획한 전시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투를 주제로 춘천을 포함한 전국 타투이스트 10명의 작품을 6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전시합니다. 춘천에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많지만, 다양성 측면에선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직접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파격적인 장르를 가지고 전시를 해보자. 불법과 예술의 경계에 있는 타투를 다뤄보자, 그런 생각으로 타투를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춘천문화재단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지원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공공의 후원을 받고, 기관의 로고를 단 한국 최초의 타투 관련 전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상상언더그라운드에서의 활동은 어떠셨나요?

양질의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한 해에 세 번의 전시와 4개의 모임을 운영했어요. 실행은 못 했지만, 전국의 일러스트 작가들과 지하상가 전체에서 펼치는 노상 전시를 계획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인 작업은 물론이고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상언더그라운드의 운영 측면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입주 작가들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운 친구들

상상언더그라운드 마53

시원솜씨

문윤정

사랑방 같은 천아트 공방



Q. 시원솜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은 이제 '천아트'를 배우고 하는 공간이에요. 천아트라고 하는 것은 규격에 상관없이 모든 천에 전용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옷이라든가 신발, 가방, 우산, 커튼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감상 위주의 정통 미술과는 달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생활 예술이라고 보시면 정답일 것 같아요.

Q. 공간에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천아트뿐만 아니라 재봉틀이랑 자수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고구마 구워주시던 사랑방 같은 느낌이 난다고 편안해하세요. 소소하게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공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사지 않아도 불편하지가 않은 곳이죠. 내가 정말 모처럼 시내 나왔는데, 어디 가서 쉬려면 돈이 들잖아요. '되도록이면 성실하자' 하고 웬만큼 아프지 않은 이상 항상 문을 열어요. 지하상가가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이 휴무거든요. 그때만 빼고 매일 12시부터 6시까지 주말 포함해서 항상 열고 있어요. 여유가 될 때 언제든 들를 수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곳이 그렇게 여겨지는 게 너무 좋아요.

Q. 작품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작품에서 천의 그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저 그림 보면 되게 편안해'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올라가는 도로 옆에 축대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몇십 년 된 곳이라서 검은 이끼나 푸른 이끼가 끼어있었죠. 사진을 찍어서 그리게 됐는데, 어렸을 적 우리 동네의 골목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이런 감성을 담으려고 해요. 곧 '공간제로'라는 곳에서 전시하거든요. 생활 공예하시는 분 5명이 모여서 뜨개공예, 가방공예, 가죽공예, 수예, 그리고 제가 천아트. 이렇게 모여서 전시도 하면서 작품 만들기 체험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2024 조운위크 봄 현장 스케치

4월 27일, 28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2024 조운위크 봄〉이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열기 가득했던 순간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퀀즈 마칭밴드의 공연으로 행사 시작을 알렸죠. 브라운 5번가에서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오후에는 강원일보 어린이합창단과 강원대학교 밴드동아리 '꾼', 아디오스매직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여성 듀오 밴드 'varnish'를 시작으로 삑삑이의 코믹마임쇼, 아라댄스 아카데미, 인디밴드 '그림하일드'의 공연이 진행되었어요.
유리볼 테라리움,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의 인기가 상당해 첫날 수량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블록, 링 던지기와 같이 상시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추가 마련했어요. 도시재생 관련 퀴즈를 맞히고 간식거리를 받고, 당일 권역 영수증을 제출 후 뽑기를 돌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솜사탕 만들기가 단연 최고의 호응이었습니다.ㅎㅎ
SNS를 업로드하고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 먹는 이벤트는 행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생화로 화사하게 꾸며진 포토존과 퀴즈 정답이 숨겨져 있는 홍보관 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운위크 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운동네로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좋은 소식

상상을 그리다

지하도상가를 한층 더 환하게 만들어줄 계단 벽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이디어 기획 회의부터 그림을 직접 그려 계단을 꾸미는 실행 단계까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상상언더그라운드 입주작가 원데이 클래스

※ 원데이 클래스에는 소정의 참여비가 있습니다.



핸드폰 스트랩 만들기

- 칠보, 비즈 공예 체험
- 목/금/토/일 예약 후 방문
- 지하도상가 마51호

문의 0507-1330-5071
최지영 작가

윤슬 아카데미

- 기본 드로잉, 즉석 인물화, 수채화 등
- 월요일 15~17시/19~21시
- 지하도상가 마27호

문의 010-9480-5088
이수석 작가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 6/1~6/15 제10회 호반윤슬ART전
- 6/16~6/30 시간의 흐름 속에
- 7/1~7/15 봄시내 천연생활 염색회
- 7/16~7/31 2024 사인전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